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0월 4일 화요일 (음 9월 4일) 제165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내 누리교사 연가투쟁 강행... 보육대란 현실화

“누리교사 결근 투쟁으로 아이들 안전 위해 결정 오늘부터 4일간 실시”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예정대로 4일부터 7일까지 4일동안 집단 임시휴원에 들어간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와 누리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난 4월부터 중단돼 체불 임금 지원을 요구하는 누리교사들의 휴가 및 집단 결근 투쟁으로 인해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임시휴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편성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다행히 이번 국회 추경으로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해결됐다. 하지만 전북은 김승환 교육감의 예산편성 거부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누리교사들의 1차 투쟁기간(4~7일)에 임시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해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200여명의 교사들이 실직과 이직을 했다”며 “김승환교육감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대책을 찾아 보육대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북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보육대란 위기를



“쌀값 하락 막아야”

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제시 공덕농협RPC를 방문해 “풍년이 됐는데도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걱정이 많다”면서 즉석 간담회를 갖고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농사가 대풍이 들어도 농민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 우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별개로 수해로 고통받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에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며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

집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 편성 의지가 없어 휴원 분위기가 더욱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누리과정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은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최종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어린이집연합회 한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의 힘을 다하고 있다. 1차 결근 투쟁기간까지 사태해결이 안 되면 2차, 3차 휴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에는 약 1,500여명의 누리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과반 이상이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은 최저임금수준인 월 120여만원 임금과 처우개선비 30만원만 받아 생활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달리는 것만으로도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군산 어린이 마라톤 곳은 날씨 속 성황리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에서 처음 개최한 '2016 군산 국제 어린이 마라톤'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달리는 것만으로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2일 군산은파호수공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곳은 날씨에도 전국에서 총 1500여명이 참가했다.

총 4km 미니코스나 구성된 이번 대회는 코스 1km 구간마다 설치된 4개의 체험존(말라리아 존, 저체온증 존, 영양 존, 식수 존)에서 영유아의 사망 원인과 해결책을 배우며, 지구촌 5세 미만 영유아 살리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장난감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부영이 가족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었다. /군산=문정근 기자

도내 식품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전국 하위

농업지역 중 1억2300만원... 전국 평균치에 못미쳐

전북지역의 식품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가 전국 평균을 밑돌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 제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식품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는 농업지역 가운데 전북은 1억 2,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 전국 1인당 부가가치 평균은 1억4,800만원에 못 미친 결과로, 전남(8,100만원), 경북(9,240만원), 제주(1억2,000만원)에 이은 전국 하위권을 형성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억6,400만원, 경기도 1억4,900만원, 강원도 1억4,800만원, 충북 1억9,200만원, 충남 1억 4,500만원으로 기록됐다. 같은 기간 도시지역은 대전이 2억

5,300만원, 광주 2억2,810만원, 울산 2억2,570만원, 인천 2억830만원, 서울 1억6,650만원, 세종 1억3,690만원, 대구 1억3,170만원, 부산 1억1,400만원 등의 순을 나타냈다. 황 의원은, “식품제조업은 농수산물을 그 재료로 하는 것이고 1인당 부가가치가 낮다는 것은 전남 지역의 농수산물 이용이 저조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 식품제조업의 활성화와 함께 농업인의 6차산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심판 매수’ 전북현대, 승점 9점 삭감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서 추가로 벌과금 1억원 부과 승점 68점에서 59점으로 2위 FC서울과 5점차 구단 “상벌위 결정 수용”

심판 매수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K리그 클래식 전북현대가 승점 9점을 박탈 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북에 승점 9점 감점과 벌과금 1억원을 부과했다. 전북의 징계는 즉시 발표된다. 이에 따라 18승14무(승점 68) 전북의 승점은 59점으로 재조정됐다. 2위 FC서울(승점 54)과의 승점차는 5점이다. 상벌위는 오전 10시부터 7시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비슷한 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K리그 챌린지(2부리그) 경남FC의 승점 10점 삭감, 제재금 7,000만원과 비슷한 수위다. 전북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하부리그 강등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등 중징계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의 효력은 법의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올해 7월 개정된 최신 상벌 규정에 따르면 ‘심판 매수 등 불공정 심판 유도 행위 및 항응 제공’의 경우 상형에 따라 하부리그 강등까지 적용할 수 있지만 전북 스카우트가 금품을 제공했던 2013년의 규정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10점 이상 승점 감점’ 규정을 피한 도 같은 맥락이다. 전북은 2013년 당시 구단 스카우트도 활동하던 A씨가 심판 두 명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상벌위에 회부됐다. A씨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전북현대가 소속 스카우터가 심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과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벌과금과 승점 삭감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날 구단은 “상벌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징계가 확정된 뒤 전북은 상벌위의 결정을 순순히 따르겠다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임직원 및 코칭스태프가 깊이 반성한다. 일련의 사태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신뢰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Now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강의실에서 계속되는 토론의 열기는 식히지 못합니다.
젊은 열정과 꿈이 가득한 캠퍼스,
오늘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중심인 행복한 대학,
여기는 국립군산대학교!

교육부의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eb. www.kunsan.ac.kr add. 전북 군산시 덕화로 558

교육혁신의 선두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대학(A)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신학연계 교육 선도대학
지역중심국제대학 중 전국 유일 PROMS 사업 선정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2년 연속 우수대학 선정

신학협력의 강자
신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3년 연속 선정

Just! Kunsan! Since 1947